채소, 여름철 식중독 주범

조리 · 보관 · 섭취 주의 필요
손씻기 · 익혀먹기 · 끓여먹기 등
실온에 장시간 방치는 금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사진은 어느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채소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의 원인은 씻지 않은 채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찍 찾아온 더위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음식물의 조리·보관·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고온·다습한 여름에 주로 발생한다. 최근 이른 더위 등 기후 변화에 따라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여름철(6~8월) 평균 병원성대장균 환자수는 2013년 656명에서 2017년 183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분변에 오염된 물, 오염된 용수로 세척한 채소, 도축과정에서 오염된 육류 등을 통해 전파된다. 특히 분변, 축산 폐수 등에 오염된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해 채소를 재배하면 채소가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될 수 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요 식품은 채소류가 34%로 가장 많았고, 육류 16%, 김밥 등 복합조리식품 3%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채소의 경우 병원성대장균에 오염된 상추, 부추, 오이 등을 깨끗한 물로 세척하지 않고, 세척했어도 상온에 장시간 방치한 후 섭취해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조리하기 전 손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닭 등 가금류, 수산물, 육류 등을 세척할 때는 주변에 날로 섭취하는 채소, 과일 등에 물이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칼·도마도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리가 되지 않은 식품과 이미 조리가 된 식품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채소류는 염소 소독액이나 식초 등으로 5분이상 담근 후 물로 3회이상 세척하고, 절단 작업은 반드시 세척 후에 해야한다.

세척된 식재료를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약처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며 "냉장고 소독,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반려견, 비만 주의하세요"

농촌진흥청, 비만 진단과 예방법 소개

반려견 비만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만 자체보다 당뇨병, 관절 질환,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간 기능 장애 등의 질병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24일 농촌진흥청은 반려견의 비만 진단과 예방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측정한 몸무게가 평균의 20%를 초과하면 비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움직임이 둔하거나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관찰해 허리가 잘록해 보이지 않는다거나 목과 엉덩이 주위가 부풀어 보일 때도 비만을 의심해 봐야 한다.

털이 풍성한 품종은 양손으로 등뼈를 만져 확인한 뒤 아래쪽으로 쓸어내렸을 때 갈비뼈가 잘 만져지지 않거나 옆구리살에 탄력이 있는 지방이 느껴지는 경우 비만으로 볼 수 있다.

비만을 예방하려면 운동과 식사량 조절이 필요하다. 먹이는 사료 정보를 파악해 1일 섭취량을 정확하게 지켜 규칙적인 시간에 먹인다. 하루 식사량을 여러 번 나눠 먹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료를 만들 때 고구마나 호박, 브로콜리 같은 섬유질이 많은 식재료와 닭가슴살 같은 고단백 식재료를 활용하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된다.

산책, 달리기 등 꾸준히 야외 활동을 한다. 바깥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장난감 물어오기, 낮은 계단 오르내리기, 마사지 등을 진행한다.

지나치게 살이 찐 상태라면 비만 처방식 사료를 주거나 수의사와 상담을 통해 비만을 치료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영양생리팀 김기현 농업연구사는 "반려견은 스스로 식사나 운동 등을 조절할 수 없다"며 "비만 예방은 전적으로 반려인이 돌보려는 마음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기동취재반

수은, 15억달러 글로벌본드 발행 성공

한국수출입은행은 24일 새벽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수은이 처음으로 발행한 미달러화 글로벌본드로, 한국계 기관이 올해 발행한 외화채권 중 최대 규모다.

이날 발행된 글로벌본드는 만기 또는 금리조건이 다른 2개 채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방식인 '듀얼 트란쉐'(Dual Tranche) 구조다. 3년 만기 변동금리 8억 달러와 5년 만기 변동금리 7억 달러로 이뤄졌다.

금리는 3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3개월 리보 금리에 0.575%, 5년 만기 변동금리 채권의 경우 3개월 리보 금리에 0.775%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번 채권 발행에는 총 168여개의 투자자가 26억 달러 규모를 주문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 투자자 분포(투자자 배정기준)는 아시아 49%, 유럽 및 중동 36%, 미국 15% 등으로 나타났다.

수은 측은 "최근 미국채수익률 상승과 미·중 무역분쟁,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도 남북 평화체제 전환 모멘텀을 적극 활용했다"며 "각국 중앙은행, 국부펀드 등의 대량 주문을 확보하는 등 한국의 굳건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반

이스타항공, 중국노선 본격 재개 돌입

이스타항공이 25일부터 청주출발 중국노선을 스케줄 오픈을 통해 항공권 판매를 시작하며 중국노선 재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에 복항하는 중국 노선은 ▲청주-선양 ▲청주-푸동(상하이) ▲청주-하얼빈 ▲청주-닝보 총 4개 노선으로 B737-800(189석) 기종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픈 스케줄은 6월22일부터 10월27일까지 운항하는 스케줄이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2017년도 3월 사드제재 이후 중단됐던 청주 출발 국제노선 중 대련 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을 오픈하게 돼 총 6개 중국노선을 운항하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중국노선 재개를 시작으로 중국 노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은 물론 7-8월 성수기 시즌을 겨냥해 중국 모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중국노선 재개를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2주간 '중국노선 리턴즈'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특가이벤트를 통해 출발일 기준 탑승기간 6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중국 재개 노선 항공권을 편도총액운임기준 최저 5만9900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 및 구매 가능하다. /기동취재반

한국은행 … 경제 성장세 3% 전망

"투자 둔화되겠지만 소비 · 수출 중심 흐름 양호"
세계 경제 성장세, 일부 신흥국 자본유출로 불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국내 경제에 대해 올 3.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던 지난 4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과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투자 둔화에도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4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물경제 지표를 보면 설비투자는 3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했고, 건설투자는 건물 공사물량 축소 등으로 전월대비 4.5% 줄었다. 제조업 생산도 자동차와 화학제품 생산 감소로 전월대비 2.2% 축소됐다. 지난달중 수출은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 등을 중심으로 1.5%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 증가로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에 그쳤다. 반면 3월중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7% 증가했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숙박·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0.4% 늘었다.소비자물가상승률(1.6%)와 근원인플레이션(1.4%)은 1%대 중반 수준을 보였다.

세계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긴 했으나 일부 신흥시장국의 자본유출 확대로 다소 불안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미국 정책방향 등이 세계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완화' 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농가소득 위한 무주반딧불사과 판촉행사 열어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이영철)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무주반딧불사과 판매 확대를 위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동안 호남권 최대 농산물유통센터인 농협 광주하나로클럽에서 무주군과 함께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연다.

이번 행사에는 무주농협 곽동열조합장 .구천동농협 양승욱조합장을 비롯하여 농협 관계자 20여명 및 무주군청 농업소득과 한광철과장, 산업경제과 이종현과장,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김승택과장등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은 이번 행사를 통해 50톤(150백만원)을 판매 할 예정이며, 판매물량 증대를 위해 시식 및 판촉도우미를 운영 하고, 고객들에게 사과 한 개씩 포장되어 있는 판촉물도 증정하고 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농협경제지주 광주농산물류센터(센터장 정구영)는 호남권 및 제주도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최대 농산물유통센터이며,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은 작년 한해 이곳에 20억원을 납품했다.

청정지역으로 대변되는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이미 무주반딧불사과로 소비지 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이번 판촉행사장을 찾은 많은 소비자들도 무주는 고랭지 지역으로 농산물 맛과 향이 뛰어나고 언제나 믿고 찾을 수 있다"면서 가까이서 무주반딧불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되어 반갑다며 앞으로도 무주농산물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